

# “지난 결과는 또 다른 전염병 이길 전략”

교수칼럼

김우식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인류는 눈부신 경제발달과 인공 지능, 과학 발전 등으로 인류를 괴롭히던 기아, 역병, 전쟁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과제인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인류는 신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이러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바웃으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신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이 땅의 인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몇 년마다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접하고 있다. 사스(2003년), 신종 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그리고 올해는 COVID-19 바이러스다. 이 중에서 사스, 메르스, COVID-19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2002년 11월 중국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이 시작되어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염병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해 각종 매체는 그 이유를 김치에서 찾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사스의 확

산을 막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911 테러가 있었기에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일시적인 교류 중단이 있었다. 일시적인 교류 중단이 사스의 퍼짐을 막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중순부터는 2달 넘게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 혹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수준과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다행히 감염원 유입이 중동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적절한 치료와 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2020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 창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미 COVID-19의 국내 유입이나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전염병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역을 잘 했기 보다는 단지 운이 좋았다는 냉철한 판단을 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번 전염병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또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 이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때가 있다. 이때 왜 환자가 나빠졌는지, 무엇을 했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었는지를 되새겨 보면 부족했던



것을 깨닫고는 한다. 이후 동일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입원하면 2번째 환자는 보다 더 치료가 잘 되어 무사히 퇴원하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사망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고, 좋은 점은 정책에 반영하여 또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실패한 것이 있으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정에는 목련이 피었고, 곧 벚꽃이 필 것 같다. 학교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초, 중, 고 개학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학생들도 사이버 강의 보다는 학교에 모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전염병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났으면 한다. 나는

건강해, 나는 젊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새로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노약자분들과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가장 큰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 환자가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가족들이 될 수 있다.

의대 교수 특히 임상 교수는 진료를 하기 위해 매일 병원에 출근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가 시작되면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때가 많다. 하지만 요즘에는 진료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게 된다. 임상 의사가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한다. 지금도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전염병에 승리할 것을 예견한다.

참여마당

이경은  
국어국문학 2018



## 코로나가 만든 우울, 함께 극복하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2월 즈음이었다. 겨우내 서울에 있었던 나는 경상남도 있는 본가에 잠깐 내려가 리라 마음먹었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반려했고 말았다. 서울에서 확진자가 하나 둘 등장하며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는 내가 ‘위험분자’가 된 것이다. 가족, 친구들과 연락에서 ‘조심해’라는 말은 어느새 안부 인사가 되었고 그들은 꾸준히 나의 상태를 걱정해 주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 경북 지역에서 그 일이 발생했다. 겨울 방학으로 모두 경상남도 본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나 빼고 모두 그곳에 있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두 조심하라고 연락을 돌리고 각자의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그들의 소식을 온라인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경남에 있는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는 온라인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올려주는 부산, 창원 시내 확진자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에 올라가기 전 자주 놀러 간 동네,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던 아파트 이름은 모두 확진자 경로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친구들과 마음 높여 걱정해 주었다. 태어난 연도가 ‘9’로 끝나는 우리들은 마스크 5부제에 해당하는 날 서로 줄 서서 얻은 마스크를 ‘인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상남도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그 누구 하나 영웅담이 아닐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다. 경남은 서울만큼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하지 않아 평소 마스크를 모아놓은 집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는 신문에 보도될 만큼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건물이 없었고 마스크를 특정 단체에 기부하기에는 가족들이 쓸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노력한 일상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다. ‘재난을 극복하는 최고의 수단은 결국 공동체의 힘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서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거라 예측한다. 우리에게 있어 이 싸움은 지치고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경상남도 지역에는 벚꽃이 벌써 만개했다. 카카오톡 방에는 각자 집에서 찍은 벚꽃 사진이 하나 둘 올라오고 있다. ‘그래도 봄이잖아’라는 말과 함께, 우울과 무기력에만 빠져 있지 말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동시에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겨내야만 할 것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 도전

꿈에 도전하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자격**

- 연령 : 입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10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25.(토), 합격자 발표 : 5. 15.(금)  
- 2차 면접평가 : 5. 25.(월) ~ 6. 12.(금), 합격자 발표 : 6. 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9. 4.(금)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의처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 02-961-0085~6  
국제 : 031-201-3271~4

